

목포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줄이기 총력전

올들어 92억원 달해...주 1회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100만원 이상 체납자 예금 압류 추진 등 적극 징수 나서

목포시가 100억원대에 달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사전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해 서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벌리는 강경·온건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자동차 과태료는 일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는 달리 자동차 의무보험(대인, 대물)을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주로 발생한다.

목포시 과태료 체납현황은 지난 2013년 91억5500만원에서 2014년 95억91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94억52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올해는 8월말 기준 92억2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체납액 92억원 가운데 보험 미가입이 71억5800만원으로 77%를 차지하고, 정기검사 지연 등이 20억66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과태료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의무

보험 가입 촉구와 정기검사 사전 안내 문자를 전송하기로 했다.

또 정확한 과태료 부과와 고지서 반송관리를 강화해 ‘민원 제로화’에 도전하기로 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는 물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자동차등록 사무소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주 1회, 월 4회씩 전직원이 나서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을 압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등록 사무소는 도로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무단 방치된 차량과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내 무단 방치 차량은 연평균 277대에 이르고 불법 개조된 차량도 연평균 96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자체 상시 단속반 운영과 함께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고, 차량 무단 방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직원들이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치에 따른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도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목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8월말 기

준 총 10만7473대로, 자동차 9만6053대, 건설기계 2872대, 이륜차 8548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의회 11일부터 2차 정례회...내년 본예산안 심의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우)가 오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는 2017년도 목포시 본 예산안과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고, 3일 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시의원 11명이 시정질문을 펼치게 된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은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송곳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질문을 접수했다가 취소하면 1년 동안 시정질문에 참여할 수 없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지난 9월 임시회 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시정질문이 취소됐기 때

문이다.

또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 17건(목포시 발의)과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시의원 발의)에 대한 심의도 이뤄진다.

앞서 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최근 이번 정례회를 대비해 제주도 서귀포시로 비교견학을 다녀왔다.

위원회는 다양한 복지보건의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를 방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우러져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상황 등을 살펴봤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들이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해 된장으로 수의 사업을 펼치는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에서 10일 걷기대회

이로공원~청호공원 5km

‘2016 세계걷기의 날 기념 시민 건강걷기’ 행사가 오는 10일 철도폐선부지 내 이로공원(버스터미널 건너편)에서 개최된

다.

목포시와 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목포, 활력 넘치는 목포’라는 슬로건 아래 박흥을 시장을 비롯한 여성단체회원, 공무원, 시민 등 500

여명이 참여해 ‘함께 걸으면 목포시가 건강해요!’, ‘100세 시대 우리 함께 걸어요!’ 등 걷기 실천 구호를 제창하며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이로공원(1.95km)을 출발해 송림공원(0.76km), 동 목포공원(0.97km), 청호공원(1.34km)에 이르는 총 5km 구간을 걷게 된다.

박흥을 목포시장은 “목포시의 대표적

인 녹지 공간인 철도 폐선부지 웰빙 공원에서 단풍이 절여가는 가을, 가족·이웃들과 함께 걸으면서 소통·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목포만의 특색 있는 건강걷기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신안 예총은 최근 전남예고 학생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도 윤림산방 등지에서 ‘차세대 수목화 리더십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2018 국제 수목화비엔날레 기반단기 활발

목포·신안예총 25일부터

‘수목화의 길을 가다’ 전

수목화 리더십 양성교육도

전남도가 ‘남도문예 르네상스 부활’을 위해 오는 2018년 국제 수목화비엔날레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신안 예총이 수목화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토양 다지기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목포·신안 예총은 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1관 2관 특별실)에서 ‘수목화의 길을 가다’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에는 호남을 대표하는 소치 허련,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 미산 허형, 백포 광남배 등 호남 작가 49명과 영남을 대표하는 소산 박대성, 창산 김대원, 아송 이원좌 등 영남작가 53명의 대표적인 작품이 전시된다.

목포전시회에 이어 영남지역에서는 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안동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서 잇따라 전시회가 마련된다.

또 행촌 문화재단(대표 이승미)의 기획으로 진도윤림산방에서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역작가 7명이 참여

해 진도 탐방과 함께 스케치한 작품을 전시하는 ‘윤림산방 구름나그네’전이 열린다.

이어 오는 28일에는 진도 윤림산방 금봉미술관에서 ‘한국 전통 정신과 수목화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박해훈 국립나주 박물관 학예실장과 이선옥 전남대 교수, 장준구 월전미술관 학예실장의 초청 강의와 함께 이치호 신진미술관 관장 등이 참여한 토론회도 마련된다.

임정호 목포·신안 예총 회장은 “2018년 국제 수목화 비엔날레를 전남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이 같은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영호남 수목화 교류전을 통해 남종화의 뿌리를 이해하고 전통 수목화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해 수목화의 세계화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목포·신안 예총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도 윤림산방과 소전·옥산 미술관 등지에서 전남예고 학생 30여명과 지도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차세대 수목화 리더십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의 골목길, 화폭으로 만나다

장유호 화백 10일부터 전시회

목포의 골목길을 화폭에 담은 이색전시회가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목포 하당에 위치한 갯바위 미술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비구상부문 심사위원을 지낸 지역화가 장유호 화백(54)의 21번째 개인전으로 ‘마인게터’등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골목길의 공간과 기억으로 남아있는 공간의 재해석으로, 선과 면을 통해 이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불균형으로 이뤄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의 중요성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과 기억을 지우고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장유호 화백은 “도시재생으로 문화와 역사 속에서 묻어간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었던 골목길의 재해석하면서 생김 감각적 기호 만드는 작업이었다”면서 “기억의 감정과 공간의 기억을 통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기억 속에 잠재된 감각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진월·효천지구 초입구 사거리

SH BUILDING

광주 남구 행암동 699번지 **전용률 83%, 대지면적 1,826.90㎡, 지상 4층, 주차장 36대**

임대·분양

진월지구,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 중심지, 빚고골 CC 노인건강타운과 **전남대병원,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1층	금융, 약국, 의류, 커피숍 안경(임정확정), 호프, 식당	2층	의원, 커피숍, 스킨케어샵 치과, 학원, 사무실
3층	패밀리레스토랑, 요가, 의원 휘트니스 등, 학원, 사무실	4층	495㎡, 한식, 카페, 패밀리레스토랑 ※4층 테라스 무료사용가능(150평)

땅지분 상가지분
각 상가 개별등기
가능 준공필

분양문의

(062)676-4006 · 010-5681-4015

시행

성희개발(주)

시공

한아중합건설(주)

양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양산지구 최고
명품입지, 명품조영!

전세값으로
새아파트 사재!

계약금 5%!
(1,100만원~내집마련)

2억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중소형
(구)26형 / (구)30형

모텔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1%를 위한 명품! 안전설계!
혁신평면구조

양산지구·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라인**
유탑유블레스

계약금 5%로
내집마련
(1,100만원~1억 이하)

최소 10년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100% 지급

임대보증금 100% 지급

임대보증금 100% 지급

분양문의
(062) **351-4610**

모텔하우스

양산광역시 서구 농성동 44-1 농성7길 7번 출구 유탑유블레스 빌딩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주)유탑다인

(주)유탑건설

(주)유탑